
황방사 스님과 신도들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며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맘 편히 식사하고 가세요!"

전주 황방사, 3년째 비빔밥 무료급식 펼쳐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전주 황방사(주지 지호)가 사랑의 나눔 공동체 전주비빔밥 무료급식을 3년째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013년 처음 시작된 황방사 비빔밥 무료급식은 지난 3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전주 명소 덕진공원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도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200여 명의 전주시민들에게 비빔밥을 만발공양 하고 나눔은 행복임을 전파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의 시민들에게 비빕밥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황방사는 신도회를 비롯해 IPWG 여성평화그룹 전주지부 여미현 본부장 등 많은 불자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지 지호 스님은 "덕진공원을 찾는 이들을 위해 무상급식 만발대중공양으로 대중과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다"며 "공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권정애 신도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드시는 것만 봐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며 "봉사를 하면서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번 황방사 무료급식을 이용한다는 이현식(72세) 옹은 "황방사 음식이 맛있어 매일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으니 기쁘고, 대중을 위해 공양을 준비한 황방사 주지스님께 고마움을 항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방사는 현재 요사채 지붕이 새고 있어 천막을 씌우는 등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척 안정사, 국책 도로공사로 폐사위기

1만4000㎡ 편입… 대웅전 옆 본선도로 신설 예정
부체도로는 대웅전 관통, 사찰 제 기능 상실 우려


사진 오른쪽 건물이 대웅전. 점선 표시된 절벽 위로 본선도로 공사가 예정돼 있다.

국책사업인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가 폐사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안정사 측은 강제수용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에 있어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금이 산정됐다"며 발주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안정사는 과거에도 한 차례 국책사업 여파로 사찰을 이전한 바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강원도 삼척 신기면 안의리에 자리한 안정사는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사찰이다. 본래 같은 면 신기리에 있었으나 30여 년 전 국도 38호선이 신설됨에 따라 사찰부지가 도로에 수용돼 198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법당 규모가 크지 않았고,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받아들여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전한 안정사였다. 이후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아 현재 3만여 평의 대지에 대웅전을 비롯한 10여개 전각을 갖춘 여법한 사찰로 거듭났다. 이 지역 630여 가구의 귀의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 확장 및 신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안정사는 본선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8필지 6만3821㎡(약 1만9300평) 중 1만4392㎡가 편입됐는데 원주청 공사계획대로라면 대웅전 바로 옆을 지나는 도로가 신설된다. 도로와 대웅전 기둥 간 거리는 불과 약 20m. 수행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부체도로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웅전을 관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안정사와 원주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본선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원주청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해당 토지에 약 8700만원의 보상금을 산정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 공탁을 한 상황이다. 안정사는 이 과정 중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원주청 관계자는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상관없다. 게다가 과거 통지했을 때 오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고, 신도들도 수차례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갈등 지속
본선도로 협의 난항 겪어
안정사, 절차상 문제제기
"사찰 이전 대책 절실"

원주청에 따르면 기본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 감정평가는 11월 12일에 실시했다. 안정사는 이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에게 통지 여부를 묻자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출입통지 후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다. 또 평가 후 확인한 사실이 맞는지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만으로 현재 책정된 보상금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곤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주청의 지장물보상금 산정조서에는 안정사 소유 소나무 644주에 대한 금액이 2140여만원으로 산정돼 있다. 건축자재에 사용될 재목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정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데다가 2007년 당시 도로공사 발표 후 안정사를 찾아온 한 조경회사는 해당 소나무 매입가로 1억7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무의 값어치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본선도로 외에 예정된 부체도로 공사 역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부체도로 공사가 이뤄지면 안정사는 더 이상 사찰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주청 관계자는 "일단 부체도로와 관련해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한 뒤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정사 반대로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정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본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외 적인 부분에 선심 쓰는 듯한 모습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선결과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안정사는 공사가 진행되면 사찰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수행환경 유지를 위한 사찰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주청 측은 "본선도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은 뒤 "간접보상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정사는 현재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토지 지상 수목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며 △신청 취하 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제출될 때까지 "입목·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법원 심리에서도 판사님이 왜 하필 안정사 쪽으로 도로를 계획해 사찰 기능을 할 수 없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돈은 중요치 않다. 국책사업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사찰만 다른 곳에 제대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외계층 위해 공공기관·민간단체 손잡아

자연음식문화원–건보심사원 전주지원 사회공헌 협약



전북불교네트워크부설 (사)자연음식문화원(이사장 곽인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6월 22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및 상호교육지원과 양 기관의 시설·장비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조원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순 (사)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생명평화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체험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회사업을 펼쳐나가겠다"며 사회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애국·희생정신 후세에 전해지길"

광주 신광사, 순국선열·호국영령 추모천도재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천도재가 열렸다.

광주 신광사(주지 일명)는 6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시지부, 신광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천도재는 지난 2001년 11월 신광사와 광주지방보훈청이 자매결연을 한 데 따라 매년 6월 봉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현대인들에게 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남겨진 후손들에게 위안의 마음을 전하고자 천도재를 봉행해오고 있다"며 "영령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희생이 고귀하지만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은 더욱 값지다"며 "선열들의 높은 희생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도재는 기념식과 상단불공을 시작으로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의 영산작법, 신중작법, 천수바라, 다게, 헌화, 봉송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